

서술문항 검토의견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박병도 교수 (043-261-2721)

☐ 학생민원 제1호

강의 자체가 영어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 안 그래도 수학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데 영어와 특수문자까지 병행하니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것같다

○ 검토결과: 불수용

○ 이유: 강의는 100% 우리말로 진행되고 있고 판서만 영어인데, 이는 우리나라 대학 수학 강의방식에서 통상적인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공과목 공부를 위해 원서와 논문을 읽기 위해서는 수리적 용어들을 영어로 전달하고 수용하는 방식에 학생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음. 현재의 판서 방식은 교육적으로 매우 적절함.

☐ 학생민원 제2호

시험을 4번 본다는 거 자체가 좀 그렇다. 교수님이 왜 이 방식 선택했는지는 이해하지만, 작년에 그런일이 있었다고 올해도 그런일이 벌어질 거라는 확신이 없는데 다음부터는 시험2번을

○ 검토결과: 불수용

○ 이유: 제1차 중간시험 평균 61.09점, 제2차 중간시험 평균 49.42 점으로 시험을 작은 범위로 나누어 자주 시행하는 것은 이 분반에 대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학생민원 제3호

시험을 일주일전에 알려줌으로써 스케줄을 매번 다시 짜야하는 불편함을 느꼈고 칠판 글씨가 필기체여서 잘 알아보가 힘들었습니다 다음수업에는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검토결과: 불수용

○ 이유: 제1차 시험은 3월 30일에 공지하고 4월 11일에 시행하였음. 제2차 시험은 4월 25일에 공지하고 5월 2일에 시행하여 7일 이전시점 공지하였으나, 이미 사전에 3,4장에 대해 시험을 예고한 후 7일 이전 확정공지가 지나치게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시험 공지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른 한편, 시험 시행일정 관련 학생들의 이견제시도 없었음. 이와 관련 담당교수는 특별히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특정 시험일정이 학생들에게 현저히 무리스럽다고 느낀다면 시험관련 질문 등 청취하는 시점에 학생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담당교수는 강좌 진행 일정과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될 것임.

아울러 담당교수는 강의실 배정 후 판서 가독성 확인, 제일 뒷열 학생들에 대하여 글씨가 잘 보이는지 구두확인, 칠판 면당 5행 이내 판서 원칙 등 전반적인 가독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강의 노트도 매주 eCampus에 업로드하고 있음. 하지만 교단 앞 3열은 거의 항상 비어있는 상황임. 이와 같다면 학생이 앞열에 와서 앉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학생민원 제4호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셔서 이해하기 힘들다

○ 검토결과: 불수용

○ 이유: 위 제1호 참조

□ 학생민원 제5호

원칙주의적이신게 모두에게 편하지만 수업 분위기가 긴장감 있다

○ 검토결과: 수용

○ 이유: 편안한 학습 분위기는 교육 목표 달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더욱 기울이겠음. 다른 한편 담당교수에게는 면학분위기나 수업운영의 공정성 등 원칙이 무너져 선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목적 달성간의 균형이 필요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학생민원 제6호

종종 영단어의 철자 구분이 안 되거나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다.

○ 검토결과: 수용

○ 이유: 간혹 판서의 일부 부분에서 이와 같은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료됨. 판서를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학생도 알아보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질문하여 주면 도움이 되겠음.